

중국·태국 등 여행때 현금보다 카드사용 유리

■ '5월 황금연휴' 해외여행 돈 아끼는 비법

환전 수수료 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저렴

부정사용 대비 결제내역 문자서비스 가입을

5월 초 노동절(1일·금요일)과 어린 이날(5일·화요일) 등 샌드위치 휴일이 낀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 나갈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금을 많이 가져가곤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가져가 환전할 때보다 수수료를 저렴하다. 특히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동남아나 중국 등 가까운 여행지를 찾을 때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 수수료는 화폐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 달러나 일본 엔, 유로화는 매매기준율의 1.7~2.5%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중국 위안,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등 기타 통화는 수수료가 6~10%에 달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해외 수수료는 매매기준율의 2.16~2.56%로 나라별 차이가 크지 않다. 중국이나 태국·필리핀·대만·베트남 등 기타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를 방문할 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전할 때보다 유리하

다는 의미다.

기타 통화로 100만 원어치를 해외에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현금을 환전했을 때는 수수료로 6만~10만원을 써야 하지만 카드를 쓰면 2만원대에서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일본이나 괌, 사이판 등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로 여행할 때에도 카드 혜택을 잘 이용하면 환전할 때보다 수수료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해외 사용분에 대해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특화카드가 많다.

하나카드의 VIVA G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면 0.5%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1.5%를 캐시백 해준다. 이용 금액의 2%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는 해외 가맹점에서 10달러 이상 사용하면 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 스마트글로벌카드는 온라인을 포함한 해외 이용액의 2%를 할인해준다.

이렇게 특화카드의 혜택을 이용하면 사실상 1%가 채 되지 않는 수수료를 쓰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다만 카드에 따라 전월 이용실적과

혜택을 주는 최소 사용액 제한이 있는 만큼 이를 잘 알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전하는 대신 ATM을 이용해 현지 화폐를 인출하는 방법도 수수료가 높은 공항 환전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다.

국제 브랜드 체크카드나 'Maestro' 'Cirrus' 등의 표기가 있는 직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는 귀국 후 선결제제를 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국제적인 은행망을 갖춘 씨티은행의 체크+신용카드 상품의 국제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해 해외에서 현지 통화를 값싸게 찾을 수 있다.

해외에 ATM이 없는 대부분 은행은 최소 해외 인출 수수료 3달러와 네트워크 비용 1%를 부과하지만, 씨티은행은 수수료가 없고 네트워크비용도 0.2%로 적어 인출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는 부정 사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결제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도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48시간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외국에 나갈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금을 많이 가져가곤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가져가 환전할 때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연휴로 인산인해를 이룬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주간 증시 포커스

상승 업종 조정 가능성

실적대비 가격메리트 株

고배당주 접근 전략 필요

국내주식시장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의 유동성 강화 정책에 따른 가파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우려 및 중국 증시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190선에 근접했던 코스피지수는 2159.80으로, 그리고 코스닥지수는 사흘째 조정을 보이며 690.74로 지난주를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변동폭이 3개월여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하고 거래대금도 지난 22일 이후 사흘 연속 8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과거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다.

최근 국내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1·4분기 실적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주요 대형 주들이 시장의 눈높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주고 있다.

그리고 24일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을 협상하기 위해 모인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의가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유로존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고, 연준의 출구전략 역시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후강동(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 허용) 실시 이후 중국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투자자산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 및 펀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내외 변수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서 투자자산에 대한 철저한 리밸런싱(투자할 때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면서 처음에 투자 계획을 할 때 수립한 자산배분 비율의 균형을 맞추는 투자전략이다)이 필요하겠다.

주식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승세가 높았던 업종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가격부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적대비 가격메리트를 가진 종목군과 국민연금기 배당 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며 배당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체 및 이의 실현을 병행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최고금리 제한에 문닫는 대부업체 는다

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잇단 폐업은 제도권 서민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줄면서 지하금융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94개로 4년전인 2010년 말의 1만4천14개와 비교해 37.9% 줄었다. 연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 895개, 2013년 9326개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업계는 2002년 연 66% 상한금리를 설정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대부업 시장이 다시금 지하시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점차 낮아지면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소형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영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업체 수 8694개

4년 새 38%가 폐업

유사 수신업체 변신 가능성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점차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07년 10월에 49%, 2010년 7월에 44%, 2011년 6월에 39%로, 지난해 4월에 34.9%로 조정됐다. 연 34.9%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일몰로 종료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일몰종료 후에 이 금리상한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연 16~17%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영업한다.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 특성상 법정 상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이에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상한금리를 낮추면서 지하로 잠적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졌다.

대부업계의 위축은 신용도가 좋지 않은 서민들이 마지막 제도권 금융 영역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대부업체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해당 고객도 이런 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아직도 불법 사금융 시장에선 '하루 1%(연 365%)'와 같은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도권 시장에서 사라진 중소형 대부업체 상당수는 신용 유사수신 업체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남뉴스

주식 활황 '초단타매매'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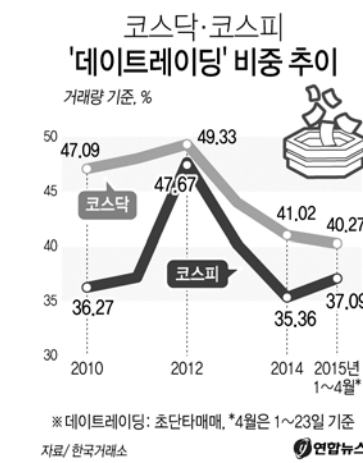
을 코스피시장 37% 차지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하루에 같은 종목의 주식을 여러 차례 샀다 팔았다 하는 데이트레이딩(초단타매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서도 거래량 10주 중 4주가 데이트레이더(초단타 투자자)의 거래 물량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중 데이트레이딩 거래 물량은 113억4천만주로 전체의 37.09%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런 단타 매매 물량은 대부분(108억9000만주)이 개인이 거래한 것이지만 일부(3억7000만주)는 외국인에 의해서도 거래됐다. 올해 데이트레이딩 거래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 31.55%보다 5.5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코스피 시장 데이트레이딩의 비중은 작년 동기 14.35%에서 올해 19.95%로 치솟았다. 데



이트레이딩은 2011~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자 개인 데이트레이더들이 사상 최고령 돌파를 노리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를 대거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개인들의 하루 평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작년 동기 1억8803만주에서 올해 3억3639만주로 78.9%나 증가했다. /연남뉴스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20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매매가 - 1억 3120만원(평당 40만원) 분할매매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매매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 전망좋은, 2013년 신축
- 방 2, 화장실 1, 거실, 베란다
- 내부깨끗,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2천만원 정도
- 매매 - 1억(대출 7천만원 가능)

문의. 010-3605-50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욱비 / 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